

'BS한양 그랑레브' 양동현대조합 6월5일 통합심의 접수



'BS한양 그랑레브' 양동현대조합 아파트 사진

이달 29일.30일 통합심의 결과에 따라 속도전

조합원 분양세대 제외한 50여 잔여세대 모집

이주 아파트세대 석면해체.제거작업 진행

광주서구 양동현대지역주택조합(조합장. 김왕겸)이 한양건설과 함께 'BS한양그랑레브' 아파트 통합심의가 들어갔다.

조합측은 분양토지의 토지권원 95.2%를 확보하고 지난달 4월 중순 서구청으로부터 조합원추가모집 승인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광주 시의심의를 받고있다.

조합은 그동안 토지소유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매입작업을 벌여온 결과 아파트와 상가를 포함 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추가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모집에는 조합원 분양세대를 제외한 50여 잔여세대로 조합측

은 신청 순서대로 분양을 마감한다. 분양아파트는 전용면적 84m A.B타입2가이다.

조합은 광주서구 마록동 174-8번지에 모델하우스를 마련했고 조합측은 지난 4월초부터 이주를 한 아파트세대부터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진행중이다.

조합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주를 하는 조합원들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공사를 계속한다.

김왕겸조합장은 "조합아파트 건설을 위한 모든 요건들을 충족하고 서구청의 조합원추가모집승인도 받아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한

다"면서 "신축할 아파트의 경우 양동시장을 포함한 중심상권에 위치한다. 광주천을 비롯한 주변이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갖고 있어 조망권도 탁월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고 추가분양의 조기마감을 자신했다.

6월5일 통합심의가 접수가 되면서 29~30일 결과에 따라 양동현대지역주택조합(조합장. 김왕겸)은 사업승인과함께 조합원들의 숙원인 아파트사업이 하반기 시작된다.

다만 통합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보완 사항이 제시될 가능성은 있으나, 조합 측은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박해경기자

한·불 수교 140주년 맞아 문화예술 후원 나선 현대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국과 프랑스 양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페스티벌 후원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6월 4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클래시컬 브릿지 국제 음악 페스티벌(Classical Bridge International Music Festival)'과

▲7월 4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아비뇽 일대에서 진행되는 세계 최대 공연예술축제 '아비뇽 페스티벌(Festival d'Avignon)'을 각각 후원하며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에 앞장선다.

현대차그룹은 한국과 프랑스 현지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후원하며 양국이 140

년간 이어온 우호와 교류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글로벌 고객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과 프랑스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국제 클래식 페스티벌인 '클래시컬 브릿지 국제 음악 페스티벌'은 서울과 파리, 보르도 등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며 프랑스와의 각별한 인연을 이어온 음악 축제이다.

서울에서 열리는 올해 페스티벌에는 프랑스 클래식 음악계를 대표하는 연주자들과 프랑스 기반

아티스트들이 다수 참여한다.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양국간 문화 교류의 의미를 담아 한국인 아티스트도 축제에 함께하며 양국의 음악적 교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공식 모빌리티 후원사로서 페스티벌 기간 중 참여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수소전기버스 유니버스 FCEV 등 이동 차량 및 전용 쇼퍼서비스를 제공해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는 계획

이다. 아울러 현대차는 고객 대상 초청 이벤트도 진행한다.

현대모터스튜디오 방문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페스티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7월 4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아비뇽 일대에서 진행되는 세계적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공연예술 축제인 '아비뇽 페스티벌'에도 함께한다.

올해 80회를 맞는 아비뇽 페스

티벌은 세계 공연예술계가 주목하는 유럽 최대 규모의 종합 예술 축제로, 매년 7월 프랑스 아비뇽 전역에서 연극, 무용, 음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올해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국어를 아시아 언어권 최초의 공식 초청 언어(Guest Language)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한국 공연예술 작품이 현지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유빈기자

'BS한양 그랑레브' 양동현대조합

6월5일 통합심의 접수